광주·세르비아 크라구예바츠시, 도시 간 첫 교류

세르비아 대사 광주방문 "첫 자매결연 도시 광주 선택"

광주시와 세르비아 크라구예바츠시의 도시 간 교류가 추진된다. 1989년 한국과 수교를 시작한 세르비아와 도시 간 교류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8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강기정 시장과 네마냐 그르비치(Nemanja Grbi?) 주한세르비아 대사가 만나 한-세르비아 관계 및 광주와 크라구예바츠 간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은 주한세르비아대사관 측에서 양 도시의 결연을 제안해 이뤄졌으며 역사·문화·산업적 측면 등을 소개했다.

강 시장은 "세르비아는 유럽과 아시아가 이어지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나라이며 크라구예바츠시는 세르비아 현대의 첫 수도로 역사·문화·산업의 중심지인 점이 인상깊다"며 "특히 국가데이터센터가 위치해 있는 등 미래 산업의 방향성도 광주와 일치해 공감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는 유럽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그르비치 대사와 만남도 교류 확장에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실무진을 중심으로 광주와 세르비아 도시 교류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네마냐 그르비치 대사는 "대한민국-세르비아 수교 35주년 만에 안정적인 양국 도시교류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 자매결연도시로 광주를 생각하고 방문했다"며 "자동차 제조 도시이자 문화·역사의 중심도시 크라구예바츠와 광주는 깊은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한-세르비아 관계 강화를 위해 소통의 다리를 놓고,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를 알리기 위해 그르비치 대사를 오는 9월 7일 열리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에 공식 초청했다.

크라구예바츠시는 세르비아의 4대 도시로 행정·경제·교육의 중심지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반나치주의자 탄압으로 2700여명의 남성이 학살된 곳으로 이를 추모하기 위한 공원과 박물관이 설치돼 있다. /김도기 기자

전남, 청년 디딤돌 통장 자립·미래설계 '1석2조'

전남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이 청년들의 자립과 미래설계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2021년 4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에 가입한 1167명에게 최근 만기적립금 83억원을 지급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지자체와 청년이 공동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간 적립하면 만기 때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두배를 받도록 하는 청년 지원책 중 하나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산을 형성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혜택을 받은 청년은 2021년 가입자로, 3년 간 매월 10만원씩 성실히 적립한 금액 360만원에 도와 시·군의 적립금 360만원을 더해 저축액의 두 배인 720만원과 이자가 추가로 지급됐다.

전남도가 희망디딤돌 통장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주거비(738명) ▲취·창업 자금(246명) ▲결혼자금(137명) ▲학자금 대출 상환(46명) 등에 만기 적립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17년 청년 행복시책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까지 선정된 6073명의 청년 중 타 시·도 전출자 등을 제외한 3399명이 만기 적립금 247억원을 수령,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았다.

도는 이달 신규 대상자 1500여 명을 모집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 받도록 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도내 청년의 자립을 돕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관광공사·전남관광재단 협약 광주관광공사와 전남관광재단이 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도 간 관광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관광공사 제공

'6월 광주·전남 여행 가는 달' 공동 상품 운영 마케팅 나선다

관광자원 공동 활용…지역관광 활성화

광주시와 전남도가 관광자원 공동 활용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을 '광주·전남 여행 가는 달'로 운영한다.

광주관광공사는 전남관광재단과 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도 간 관광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광주·전남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국내외에 공동 홍보마케팅도 진행한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역지자체 간 공동 협력이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을 광주·전남 여행 가는 달로 지정해 운영하며, 숙박시설 할인·관광지 입장료 할인·기념품 제공 등 기존의 혜택에 더해 광주·전남만의 다양한 공동 행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또 광주와 전남의 주요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광역 시티투어 코스를 개발해 공동 운영하고,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알찬 여행 상품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전남관광재단 '남도한바퀴' 홈페이지와 광주관광공사 '시티투어' 예약 홈페이지 등 홍보 창구를 다양화해 운영한다.

해외 관광마케팅을 위해 K-로드쇼(베트남) 공동 참가 등 국내외 관광객 대상 설명회도 함께 개최한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와 전남이 한 마음으로 지역관광 자원을 통합하고 발전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남도 관광을 새롭게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경쟁률 하락

5기 교육생 2차모집까지…330명 모집에 2.2대 1

광주 인공지능(AI) 사관학교 제5기 교육생 경쟁률이 2.2대 1을 기록해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공지능(AI)사관학교 제5기 교육생 330명 모집에 전국에서 712명이 지원,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는 광주지역 491명, 수도권 105명, 타지역 116명 등이다.

인공지능 사관학교 경쟁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80명을 모집했던 지난 2020년 1기 경쟁률은 5.8대 1을 기록했으며 2기 3.4대 1이었다.

3기부터는 330명을 모집했으며 경쟁률은 4기 포함 2.3대 1이었다.

5기때는 2차 모집까지 진행했지만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관심도가 떨어진 것으로나타났다.

인공지능 사관학교는 기반시설에서 현장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고 무료 교육, 취업률이 71.1%(3기 수료생 기준)로 높아 개설 초기에는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지원자 모집 시기와 대학 합격자 발표 시기와 맞물리고 홍보 부족 등이 이유로 지적됐다.

실제 5기 교육생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1차 모집기간에 370명이 지원했으며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2차 추가모집해 342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조선주 기자

광주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부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설치 장소 부적절·시스템 미등록 등

광주지역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에 의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비치 공동주택 50곳을 표본 추출해 점검을 한 결과 총 95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전기충격을 통해 심장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기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한다.

광주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장은 공동주택 363곳, 300인 이상 사업장 169곳, 다중이용시설 246곳 등 모두 840곳으로 각 공동주택 또는 사업자가 관리하며 자치구가 지도·점검 한다.

의무설치대상 공동주택 등을 점검한 결과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사례가 6건 적발됐다.

또 장비를 교체한 뒤 시스템 미등록, 관리 담당자가 변경됐음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기기를 설치했지만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관리자 교육 미이수도 확인됐다.

점검을 통해 광주시는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장비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사항은 기한을 두고 해당 기기 관리책임자(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이행 여부를 추후 확인할 계획이다. /김도기 기자

전남, 도로 위 지뢰 '포트홀' 정비

11개 위험구간 10㎞…재난기금 20억 풀어 내달말까지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이 올해 들어 폭증하면서 전남도가 긴급 보수에 나섰다.

전남도는 8일 "급증하는 포트홀 정비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20억원을 긴급 투입해 11개 위험구간 10㎞를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남에서 발생한 도로 파임은 1435건으로 지난해(492건)보다 3배 넘게 증가했다.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강수량이 많았던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도는 전남 지역 지방도와 위임국도 2954㎞를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60개 구간 45㎞에 9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교통량이 많고 위험한 10개 구간 7.9㎞에 대해선 20억원을 1차 투입해 지난달 보수를 완료했다. /김 호 기자

광양시 공고 제2024 - 874호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계획 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광 양 시 장

1. 조사목적
광양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선정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입지 후보지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2. 조사기간 : 2024. 3. ~8. ※ 현지조사 여건 등에 따라 조사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3. 조사대상 지역 : 광양시 전역

4. 조사내용
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 생활폐기물 등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생활폐기물 복합폐수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나. 설치기관 : 광양시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입지에 따라 종류·규모 및 부지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
○ 종류 및 규모 : 소각시설 220톤/일, 재활용품선별시설 30톤/일,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90톤/일
○ 부지면적 : 66,000㎡ 이상
라.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 광양시 전역
마. 조사범위
○ 현황 및 입지후보지 조사
- 지역현황 : 지리, 지형, 기상, 행정구역, 토지이용, 인구 및 산업 현황등
- 일반현황 : 환경기초시설현황,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광양시 국·공유재산 부지 현황 등
○ 입지후보지 현장 조사 및 환경영향 검토
- 후보지별 활용 가능 면적, 인접 주민현황 등 현장 조사
- 생태계, 대기질, 수질, 악취, 토지이용 등 환경영향 검토
○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및 최적 후보지 조사
- 입지적 조건, 사회적 여건, 환경적 여건, 기술적 조건, 경제적 조건 등을 평가하여 최적 후보지 선정
○ 관련 법규 검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기타 주민지원방안 검토 등

5.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 전문연구기관 : ㈜한국종합기술

6. 본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기타 공고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동 법령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자원순환과(061-797-2996~7)에 문의 바랍니다.